

“한국전통산사 가람 배치 영지신앙과 관련깊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리포지엄서 이상해 교수 ‘...한국전통건축’ 발표



◇이상해 교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10월7일~8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서양 건축문화비교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동·서 문화비교’ 프로그램의 제1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건축문화의 비교를 통해 동서양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는 등 심도깊은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1주제인 동서양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차이점에서 ‘문화·공간 도시와 한국전통건축’을 발표하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는 배포된 논문에서 “자연관, 토속신앙,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자연관과 사교 등의 요소는 한국 전통건축의 기능이나 용도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한국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전통건축 특유의 건축 공간도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람이 경치가 아름다운 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연유를 불교 신앙이 한국 고유 토속신앙의 하나인 영지신앙(靈地信仰)과 결합하여 민간신앙으로 널리 행해진 것과 연관짓는다. 영지신앙이 한국의 전통불교사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초기 한국사람들은 중국사람과 마찬가지로 마당을 중심으로 화랑이 둘러싸고 필요한 위치에 건물들이

자리잡는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사원인데 이 교수는 이러한 배치형식은 한국의 지형조건에 맞는 사원배치로 바뀌면서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처럼 대칭구조에서 벗어나다고 밝혔다.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산지에 조성된 많은 불교사원들은 대웅전 등 본전 건물의 앞마당이 사원의 중심공간을 형성하며 그 앞으로 누각이 조영되어 사찰의 출입과 경관구성을 위한 주요 축적이 되고 마당 좌우에는 요사와 선방이 자리잡게 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 교수는 “이러한 사원배치와 공간형식은 사찰에 들어선 전



◇한국전통건축에서 드러나는 공간구성은 사찰의 건물배치가 불법을 깨달도록 지리했다. 사진은 부석사.

각들을 중심으로 불교적 세계관으로 불 때 육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등 삼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석사는 대지 전체가 여러 단의 석단(石壇)으로 구축돼 있고 이 석단을 적극적인 구성요소로 활용하여 진입축과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한국건축 특유의 공간도식을 보여준다. 불경사 영산암의 구성기법과 공간 처리는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을 이루는 빼어난 면모를 보인다. 『사각

도 끝도 없는’ 불교적 공간이 그곳에 전개되는 것이다.

이상해 교수는 “한국전통건축에서 찾을 수 있는 건축공간의 특성이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경지에 속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규명하는 차원을 떠나 그 처리기법은 불법을 깨닫게 하는데 훌륭한 건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며 “부석사, 불경사 영산암 등은 한국 사원건축 공간구성의 한 특질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젠마운틴 사원

미국내 일본불교의 현주소 가늠

팔문법·정행등 다양한 정보 열람

젠마운틴 사원은 미국에서 일본불교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사이트. 미국에서 대표적 인 선사로 꼽히는 다이도 로리스님이 주석했던 이 사원은 출가승의 수행도량으로, 재가불자들에게는 실천적 수행과 생활선을 배울 수 있는 사찰로 각광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원에서 가르치는 수행법인 팔문법(Eight Gates) 정행(Right Action)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침묵과 깊은 성찰로 요약되는 팔문법은 매일 7~10시간의 좌선, 염불, 공양, 행선, 율령 등 직관적 수행과 육체·감성적 실천이 병행된 젠마운틴 사원 특유의 수행법이다.

정행이란 죄수교화, 환경보호, 에이즈퇴치 등의 실천적 보살행을 일컫는다.

뉴욕주립교도소의 요청에 따라 1984년부터 시작한 죄수교화운동은 교도소에서 죄수들의 선수행을 지도하고 일반 죄수들의 귀에도 들리고 있다. 또 1992년부터는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자앨범에서 제공하는 40여장의 사진은 이같은 활동을 가늠케 한다.

또 젠마운틴 사원은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경전 1백여 종에 대한 영역 전자출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일본의 하나조노대학의 하나야마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 10여종의 경전이 제공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

은 일본의 불교학자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편집된 것으로 방대한 불교경전 가운데 불교사상의 정수만을 뽑아서 모아 놓은 것이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 환자들에 대한 봉사 활동도 배울 수 없는 정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에이즈 감염 환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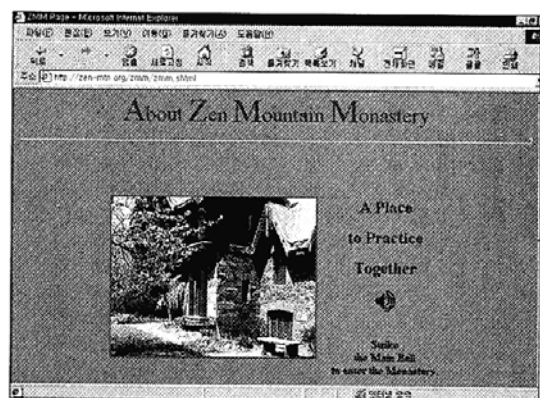
에이즈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도시빈민들에게 젠마운틴 사원의 헌신적인 노력은 바로 진정한 신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생활의 도> <선의 팔문(八門)> <살아있는 것의 불성> 등 로리스님의 선서와 ‘원과 바위’ ‘무명석(無明石)’ ‘바위와 물’ 등 선화 8점도 열람할 수 있다. 또 팔리어와 범어 그리고 영어로 색인된 139종의 경전과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전산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것은 단연 불교음악 편도 송차권, 리얼오피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전자앨범에서 제공하는 40여장의 사진은 이같은 활동을 가늠케 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http://zen-mtn.org/zmm/zmm.shtml



“매월당은 儒佛·禪教 융합회통”

진성규 교수 ‘김시습 학술강연회’서 주장

“본령은 유학자나 자취로 바서는 승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매월당은 유·불을 회통한 인물로 설장(雪峯)이라는 법명을 받은 승려다.”

9월의 문화인을 김시습을 기리기 위해 강릉문화원이 9월28일 개최한 매월당 김시습 학술강연회에서 진성규 교수(중앙대)는 “설장의 운수행각은 21세 삼각산 중흥사를 처음으로 하여 부여 무량사에서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어졌으며 매우 신실한 승려였다”며 “어느 곳을 가든지 불경공부와 참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선을 강조했던 매월당에게 운수행각은 한을 씻으려 전국의 강산을 다닌 것이 아닌 계침의 한 방편이었다”고 지적했다.

매월당의 화엄관은 선과 원융하여 둘이 아닌 이와 사를 일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저작 <대화염법계도주>에서 드러난다. 매

월당의 저서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것은 <묘법연화경발찬> 1권, <십현담요해> 1권, <대화염법계도주> 1권, <매월당시서유록> 4권, <매월당집>, <조동오위요해> 등이다. 특히 삼국시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매월당전집>에도 수록돼있지 않은 <조동오위요해>는 도교에서 파생된 유교의 태극도와 불교의 조동오위가 융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 책이다. 매월당이 유불에 회통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묘법연화경발찬>은 매월당이 교(敎)를 선(禪)으로 해석하여 선교(禪敎)를 화통(會通)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대화염법계도주>에서 드러나는 설장의 화엄관은 선과 원융하여 둘이 아닌 이(理)와 사(事)를 일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보여지는 설장의 불교관은 선을 강조하는 선사이면서도 어느 법종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



인의 모습이다. 교학적 측면에서도 화엄·법화사상을 선과 융합함으로써 원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는 주목을 요한다.

진 교수는 “매월당은 원효의 화쟁사상, 의천의 교관변수, 지눌의 정혜승수 등의 의천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자세는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보여지는 설장의 불교관은 선을 강조하는 선사이면서도 어느 법종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

강지연 기자

“보르헤스의 작품세계 불교사상이 바탕”

김홍근 교수, 탄생100주년 분석

소설가 보르헤스가 본 불교는 어떤 것이었을까. 서구인으로서 불교의 깊은 맛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보르헤스의 불교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서울대 스페인 중남미연구소가 주최한 보르헤스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김홍근 교수(한국대)는 “보르헤스는 포용력과 관용의 정신을 가장 인상깊었던 불교의 특징으로 들면서 이것이 장구한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 생명력의 이유라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르헤스는 부타의 가르침의 결론을 인생이란 집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본다고 보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선불교의 매력은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의 죄와 그 속죄라는 문제보다는 우리 삶의 본바탕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죄의식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환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르헤스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지층에는 불교적 사고방식이 깊게 깔려 있다”며 “서구인들에게 참신하게 다가왔던 보르헤스의 환상세계가 사실은 불교사상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동서사상 간의 교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학술단신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6일 오후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설장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고려시대 대장경의 역사’를, 임기중 교수(동국대)는 ‘한국 불전 전산화의 범위와 방향’을,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

화연구원)는 ‘다언어 불교 용례 사전의 전산화’를, 윤용석 실장(고려대장경연구소)은 ‘고려대장경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을, 이용규 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 전자 전산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선 이금식·정승식 교수(동국대),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진원스님(종교연합 한국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삼화사(주지 원행)는 동해시와 함께 ‘두타산성과 삼화사의 민족정신’을 주제로 7일 오후2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남현 교수(관동대)의 사회로 정태혁 교수(동국대)가 ‘불교의 호국사상과 한국 불교’를, 홍상성 주필(불교신문사)이 ‘삼화사의 역사적 성격과 민족정신’을, 이상수 학예연구원(관동대 박물관)가 ‘두타산성의 현황과 역사’를, 이정희 교사(삼척삼일고)가 ‘복재 민영호의 의병활동과 삼화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법산스님(동국대 교수), 현각스님(조계종 총회위원), 차용걸 교수(충북대), 방동민 교수(관동대) 등이 참여한다.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인 한장에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 4. 화엄경 약찬(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 7. 무탁성(6분 19초) 8. 법성경(2분 49초) 9. 무상경(4분 51초)
 -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9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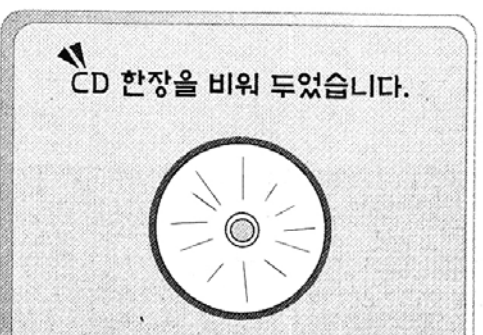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성정

- 규격: W×D×H (26×18×65cm)
-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 들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 경내에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스님들의 포교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높은 법력이 담긴 좋은 법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CD에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찰을 찾는 신도님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기간: 1998. 8. 16 ~ 8. 21 (기간안에 주문한 분에 한함)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깝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번호 : 서울은행 51304-6100001 (예금주 이회숙)

■ 보급처 : 법운 총법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30번지